

Hamlet의 고뇌와 갈등

홍 기 창

(I)

고전적 의미에서 비극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이야기”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 비극은 귀한 신분의 사람(nobleman)이 그 신분을 상실하면서 심한 수난과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극화하고 있다. 신분은 바로 그 사람의 인간적 고귀함의 척도였기 때문에 귀한 신분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 고귀함도 상실함을 의미했다. 중세로부터 내려온 신분 중심의 인간관이 이 시대의 지배적 이념이었고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 세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는 그러한 신분중심의 인간관이 고전의 부활로 일어나기 시작한 이성 중심의 인간관에 의해 도전을 받는 시기였다. 신분의 고하에 의해 그 사람의 고귀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계발에 의해 그 사람의 인간적 고귀함이 결정된다는 새로운 인간관이 중세로부터 내려온 신분중심의 인간관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은 여러가지 형태로 비극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분은 잃어도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주인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많은 비극에는 신분이 높은 주인공이 비록 고귀한 신분은 잃지만 인간적 존엄성을 오히려 획득하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 비극의 주인공이 이성애에 의해 인생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세적인 신분중심의 인간관과 이성중심의 새로운 인간관은 상호 조절되기 어려운 상충하는 이념이다.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혈통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는 지배층(nobility)의 특권이였다. 사회제도에 의해 즉 지배층의 통치이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특권이 정해졌다. 중세적인 신분 중심의 위계관은 이처럼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이념이였다. 이에 반하여 이성중심의 새로운 인간관은 각자가 교육을 통해 이성을 계발함으로써 인간적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성은 누구에게나 생득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계발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휴머니즘의 발달로 생겨난 이성중심의 인간관은 근대적인 개인주의였다. 이성을 계발할 수록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이러한 신사상은 세습적인 신분이 높을수록 완전한 인간이라는 중세적 인간관과 상충될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독교 교리와도 상충되는 사상이였다. 기독교는 신에 대한 믿음과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지만 고전사상은 이성을 통해 “불멸의 영혼”(immortal soul)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다. 고전사상은 이성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은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중심의 위계관과 기독교 신앙과 대립 상충했다. 이러한 갈등은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서구인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셰익스피어는 *Hamlet*에서 Hamlet이라는 왕자

P
520
Feb 17th
1992
C. 5

의 내면 세계에서 중세적인 사상과 르네상스적인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 사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극화하고 있다. Hamlet은 황태자로서 중세적인 세습제에 따라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다. 그는 탁월한 기사로서 중세적인 귀족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 가서 고전 교육을 받아 신사상을 체득했다. 그는 황태자로서 중세의 이념을 계승할 신분이면서 고전 교육을 받아 신사상을 도입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는 상호 모순된 두 이념을 갖게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그의 입장을 셰익스피어는 그가 숭모하고 흠모하는 인물들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가 숭모하는 인물이 셋이 있다. 선왕이며 부왕인 Hamlet, Norway 왕의 조카로 야심 많은 Fortinbras, 그리고 대학 친구인 Horatio가 그가 숭모하는 인물이다.

Hamlet이 최고의 이상적 인물로 흠모하고 숭배하는 선왕 Hamlet은 “영웅적인 왕”이었다. 그가 기억하고 숭배하는 선왕의 모습은 Norway를 정복할 때의 영웅적인 모습이다. 또한 그는 <기사>답게 어머니를 사랑한 부왕의 모습을 사모한다. 그가 삼촌을 Satyr에 비유하고 아버지를 Hyperion에 비유할 때도 아버지를 기골이 장대한 영웅상으로서의 Hyperion을 상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가 Fortinbras를 좋아하는 것도 Fortinbras에게서 출중한 기사상을 보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없는 Poland의 조그만 땅을 차지하겠다고 Fortinbras가 보잘것 없는 병졸을 이끌고 행군하는 것을 보고 그가 탄복하는 것도 그러한 Fortinbras에게 탁월한 기사상을 보기 때문이다. Hamlet은 이처럼 중세의 이상적인 귀족상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그는 또 Horatio를 가장 이상적인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Horatio는 귀족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대학에서 사권 친구로서 기사(knight)가 아니다. Horatio는 학문적으로 출중한 인물이다. Hamlet이 그에게서 보는 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인물, 즉 이성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인물로서 Hamlet은 Horatio를 가장 이상적인 단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람”(that man That is not passion's slave, III, ii, 64),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인물”(one, in suffering all, that suffers nothing, II, ii, 58)로서 Horatio를 인식하고 그를 유일한 친구며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결국 Hamlet은 두 개의 이상적 자아를 갖고 있다. 부왕이 대표하는 영웅적인 자아와 Horatio로 대표되는 이성적인 자아를 그의 이상적 자아로 흠모하고 추구하고 있다. 중세적인 영웅과 고전적인 이성적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이상이 서로 상이한데 Hamlet은 그런 두 이상을 동경하고 있다.

Hamlet은 특이하게도 열정적인 인물이다. 그가 이상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흠모면서, 이상적이 못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경멸한다. 그는 죽은 부왕을 Hyperion, Jove, Mars, Mercury 등의 신에 비유하면서 삼촌 Claudius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Satyr나 “황무지(moor)의 짐승”에 비유한다. 아버지는 “남성의 표본”(the assurance of a man III, iv, 63)인데 삼촌은 <짐승>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특히 그는 외모상의 차이를 놓고 아버지와 삼촌을 비교하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그러한 명백한 외모상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눈이 있느냐”(Ha, have you eyes? III, iv, 65)고 힐책한다. 미남형(Hyperion)이면서 영웅적인 아버지의 외모와 불꽃없이 생긴 삼촌의 외

1. Cyrus Hoy, ed., *Hamlet* (New York: W.W. Norton, Inc, 1963). 이하 본문 인용은 이 판에 의거함

모를 구별하지 못하고 삼촌에게 재혼한 어머니는 분명 사랑에 눈 먼 것이 아니고 “욕정”(the compulsive ardour, III, iv, 68)에 눈이 멀었다고 분개하면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그는 그러한 어머니를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O God, a beast that wants discourse of reason/Would have mourn'd longer, I, ii, 150-1)고 탄식한다. 영웅적이지 못하다고 삼촌을 “짐승”으로 비하하고 그러한 삼촌을 택한 어머니를 “이성이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위에서 언급한 그의 모순된 이상에 따라 삼촌과 어머니를 판단하고 있다. 그는 중세적인 인간관에 따라 삼촌을 짐승으로 비하하고 어머니에게는 중세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고전적인 윤리관에 따라 어머니의 “욕정”을 탄핵하고 분개하고 있다.

Hamlet은 이처럼 영웅적이지 못한 사람과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혐오하는데 이것은 그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임을 의미한다. 극단적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상과 상치되는 현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극단적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극단적 허무주의자가 되어 있다. 그만큼 그의 갈등도 격렬할 수 밖에 없다. 이상에 대한 갈망이 강렬할 수록 현실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두 친구 Guildenstern과 Rosencrantz에게 “흙의 원소”로 존재하는 인간이 싫다고 말하면서 한 다음 말은 그의 <자아 분열>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잘 나타낸다.

What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ies,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and yet, to me, 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 Man delights not me—nor woman neither, though by your smiling you seem to say so.

(II, ii, 292-298)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 싫다는 이 말에는 그의 자기 혐오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신성하고 고귀하다 해도 인간의 실존은 “더러운 육신”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다. 그는 그런 절망감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는 그의 첫 독백에서 더러운 육신을 해체하여 한 방울의 이슬로 화해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자살을 금지하는 신의 계명만 없다면 자살을 해서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I, ii, 129-132). 그의 유명한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의 독백에서도 그는 자살을 통해 “육신의 괴로운 굴레”(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That flesh is heir to, III, i, 62-3)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를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못할 이유를 찾는다. 사후의 세계를 실증적으로 알 수 없어서 자살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 사후의 세계를 알려준 일이 없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하여 차라리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디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이유로 그는 자살을 피하고 있다. 그는 <의심하는 도마>(Doubting Thomas)처럼 <실증>이 없이는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과 육신의 괴리라는 문제는 기독교 교리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영혼의 속성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전적 발상법이다. 기독교 교리 상으로는 영혼의 속성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이성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는 이성은 불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영웅도 고전적인 윤리관에서 말하는 이

성적인 인간관은 거리가 멀다. Hamlet이 Fortinbras에 대해 말하듯이 영웅은 “명예”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싸우는 인물이다.

Rightly to be great
Is not to stir without great argument,
But greatly to find quarrel in a straw
When honour's at the stake.

(IV, iv, 53-56)

물론 이 말을 하는 Hamlet은 합리적인 사고로 중세적인 영웅상을 분석하고 있다. 자신은 영웅적이 아니지만 영웅은 어떤 인물인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결국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의 신앙과 중세적인 인간관을 그의 이성 중심의 인간관과 가치관으로 분석하고 해부하고 있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그가 물려 받은 중세적인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을 이성 중심의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해부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그가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에 충성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싶은 갈망으로 괴로와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그의 정신 세계에서는 중세적인 사고 방식이 이미 <유령>의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를 위해 죽음을 가볍게 여기던 중세의 윤리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는 “이성”을 위해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독백에서 그는 Fortinbras처럼 명예를 위해 “앞으로는 오직 피의 복수만 생각하하겠다”(My thoughts be bloody or be nothing worth, IV, iv, 66)고 다짐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위해 자살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신사고의 사도가 되어 있다. 그리하여 구시대의 <유령>이 신사고를 추구하는 그에게 구시대의 가치관을 <잊지 말>(Remember)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합리적인 사고로 인간성과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더 집착한다.

(II)

Bradley는 Hamlet이 어머니의 재혼에 충격을 받아 그의 “고귀한 정신”(a noble spirit)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다. 부왕의 서거는 슬픔은 주었지만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Hamlet이 부왕의 유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우울증에 빠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재혼은 어머니의 본성이 관능적이며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이 천박하다는 사실을 Hamlet에게 일깨워 주었고 여기서 오는 “윤리적 충격”(moral shock)으로 그는 인간성에 대한 절망과 혐오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Hamlet이 고귀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다는 점을 Bradley는 강조했다. 그러나 Bradley는 너무 합리적인 해석에 치중하여 Hamlet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재혼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간과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은 Hamlet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징하던 것의 상실이다.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징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그의 반응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Hamlet의 Claudius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알려면 그의 부모가 상징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Claudius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으므로 Hamlet이 부모의 상실로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Claudius에 대한 그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Hamlet은 어머니가 부왕이 서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삼촌한테 재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욕정”에 끌려 재혼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한테 재가한 것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어머니가 누구하고 재혼했다고 해도 그는 어머니의 재혼을 용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재혼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혼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한 것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여자의 남자에 대한 사랑이 육욕을 순수한 사랑으로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순수한 사랑만이, 즉 정숙한(chaste)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던 Hamlet은 그리하여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한 마디로 어머니의 재혼은 그에게서 사랑을 박탈한 것이다. 그는 Ophelia를 순수하게 사랑했다. 그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Polonius나 Laertes가 의심했듯이 정욕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Such an act

That blurs the grace and blush of modesty,
Calls virtue hypocrite, take off the rose
From the fair forehead of an innocent love,
And sets a blister there, makes marriage vows
As false as dicers' oaths—O such a deed
As from the body of contraction plucks
The very soul, and sweet religion makes
A rhapsody of words.

(III, iv, 40-48)

Hamlet이 어머니의 재혼에 격렬히 반발하고 분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것이 그에게서 “순수한 사랑의 꽃봉오리”를 잘라 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재혼을 보고 여자에게는 순결한 사랑이 없고 오직 더러운 살덩이의 욕구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Ophelia 보고 “수녀원으로 가라”고 한 것이다. 그가 <극중 극>이 끝난 뒤 어머니한테 와서 “말을 단도로 사용하여 어머니 가슴을 후빈” 잔혹한 행위도 그가 어머니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원한의 발로다. 어머니를 잃음으로써, 즉 그가 어니머한테 투영했던 정숙한 아내, 유덕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잃음으로써 그는 여자에 대한 꿈, 이상적인 여성상을 상실했고 그 결과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좌절이 Ophelia에 대한 그의 이상한 태도로 나타났다.

한편 그가 아버지를 잃은 것은 중세적인 인간관의 상실을 가져왔다. 신분 중심의 중세의 인간관으로 보면 그의 선왕은 <가장 고귀한 인간>이다. 왕은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따라서 혈통에 있어서나 인격적으로나 가장 고귀한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Hyperion과 같은 신화적인 존재하고만 비교하려고 했다. 그러한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 그로서는 허무하기 이를데 없다. 아버지가 아무리 고귀하

다 해도 결국 육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사같은 미물에 물려 죽게 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숭모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그는 아버지 같은 분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한다. 그러한 필사적인 거부의 방편으로 그는 부왕에게서 초인적인 영웅상을, 다시 말해 Hyperion, Jove, Mercury, Mars 등과 같은 영웅상을 불려오 한다. <위대한> 부왕이 하찮은 미물이나 보잘것 없는 삼촌한테 독살당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인간상, <고귀한> 인간상을 믿는 관념론자고 이상주의자다. 그러한 그에게는 부왕의 독살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고 부왕의 독살이 가능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컸다. 그가 그러한 현실에 대해 강한 반감과 모멸감을 품는 것도 죽은 부왕을 신격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하게 변한 현실을 거부하려는 그의 안간힘이다.

Hamlet이 부왕과 왕비인 어머니에 대해 그가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셰익스피어는 그가 Priam과 Hecub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표현했다. Hamlet은 Priam과 Hecuba의 최후가 보여주는 영웅적인 남자상과 자기 희생적인 정절의 여성상에 감동하고 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 노구를 내던진 Priam의 처절한 최후는 Hamlet이 흠모하는 영웅상을 대표하고, 남편 Priam의 처절한 최후를 목격하고 절규하는 <고뇌하는 왕비> (suffering queen) Hecuba는 Hamlet이 상모하는 여성상을 대표한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 노구를 내던진 영웅 Priam은 Hamlet이 부왕에게서 보던 영웅상을 포상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고뇌하는 Hecuba는 Hamlet이 어머니에게서 보던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Hamlet이 보던 그러한 이상적인 남자상과 여성상이 Claudius에 의해 짓밟혔다. Norway를 정복했던 영웅적인 아버지가 Claudius 같은 하찮은 인물에게 독살당함으로써 Hamlet이 기리던 아버지의 영웅상이 허물어졌다. 그가 어머니와 재혼한 것도 그에게는 충절과 정숙의 여성상을 유린한 것이다. Hamlet으로서 Claudius가 단순히 아버지를 독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에 살아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살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Claudius는 Hamlet에게는 아버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원수다. 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은 그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그의 정신 세계에서 흠모하던 부왕과 어머니는 중세적인 남자상과 여성상이다. 그는 이성적인 신사라고 그러한 구시대의 가치관을 허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 그가 복수를 부르짖으면서 애매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그의 자기 모순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가 무의식 속에서 파괴하고 있던 중세적인 가치관을 Claudius는 실질적으로 파괴했다. 인간적 도리로 보면 Claudius는 악한으로서 응징의 대상이지만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Hamlet의 동조자인 셈이다.

(III)

비평가들은 Hamlet이 왜 복수를 지연시키면서 자책만을 하는지 그 원인을 따지고 그러한 그의 성격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애써왔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복수의 지연 문제가 Hamlet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Hamlet의 성격 비평이 발달하게 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일반적으로 Hamlet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실천력이 결한 지성인이어서 복수를 결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Hamlet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는 지성인의 대명사로 이해하게 되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가 Hamlet이 복수를 지원하며 자책하는 말을 따져보면 Hamlet의 문제가 성격상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Claudius라는 한 인간을 죽여 복수하기로 한다면 능력도 수단도 갖고 있다. 그러서는 그렇게 할 명분도 갖고 있다. 문제는 Claudius가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부왕이 서거한 뒤 합법적 절차를 밟아 등극한 명실상부한 왕이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Hamlet과 그의 친구 Horatio뿐이다. Hamlet으로서는 유령의 딸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합법적인 왕을 시해하는 것은 대역죄 중에서도 대역죄다. Hamlet의 딜레마는 그런 대역죄를 지어서라도 삼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삼촌이 선왕을 시해한 대역 죄인임을 증명하고 공격으로 복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무조건 갚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만 하면서 잔인하게 복수할만한 명분과 능력과 수단이 있다고만 단언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명분은 사적인 명분일뿐 그것을 공적인 명분으로 바꿀 방법을 그는 찾지 못하고 있다. 삼촌이 선왕을 시해한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서는 복수를 하지못해 괴로와할 이유가 없다.

Hamlet은 선왕의 유령에게서 복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오직 복수를 해야한다는 생각,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결의만 다짐할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피의 보복”만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그가 그를 방문한 배우가 비통해하는 Hecuba의 역을 감동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시인의 “허구”(fiction)만을 갖고 실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배우의 재능에 감탄하면서 그러한 재능이 자기에게 있다면 복수면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배우는 “감정을 상상만 하고도”(in a dream of passion) 실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연기를 해내는데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감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여 백성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을 심히 자책한다. 배우처럼 사람을 감동시킬 능력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선왕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여 현왕인 삼촌을 공격으로 응징할 수 있을텐데 그런 능력이 없어 선왕의 복수를 못하고 있다고 Hamlet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He would drown the stage with tears,
 And cleave the general ear with horrid speech,
 Make mad the guilty and appall the free,
 Confound the ignorant, and amaze indeed
 The very faculties of eyes and ears.
 Yet I,
 A dull and muddy-mettled rascal, peak
 Like John-a-dreams, unpregnant of my cause,
 And can say nothing—no, not for a king,
 Upon whose property and most dear life
 A damn'd defeat was made. Am I a coward?
 Who calls me villain, breaks my pate across,
 Plucks off my beard and blows it in my face,
 Tweaks me by the nose, gives me the lie in the throat
 As deep as to the lungs—who does me this?

Ha!
 'Swounds, I should take it: for it cannot be
 But I am pigeon-liver'd and lack gall
 To make oppression bitter, or ere this
 I should ha'fatted all the region kites
 With this slave's offal. Bloody, bawdy villain!
 Remorseless, treacherous, lecherous, kindless villain!

(II, ii, 527-548)

위의 독백은 복수와 관련된 Hamlet의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현왕인 삼촌의 대역죄를 고발하여 사람들을 격앙케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아둔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질타한다. 삼촌이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보복하듯이 복수할 수 없어 Hamlet은 괴로와하고 있다. 삼촌이 합법적인 왕으로 있고 백성들이 그를 합법적인 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삼촌을 죽인다면 자신은 대역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삼촌이 선왕을 시해한 대역죄인임을 증명해 보여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괴로와하고 있는데 배우가 시인이 꾸며낸 허구의 내용을 갖고 관객을 감동시킨다는 점을 생각하자 그 괴로움이 극에 달해 위와 같은 독백을 하게 되었다. 왕이란 신분은 Claudius의 말대로 “신성이 울타리를 쳐주고 있어서 반역자는 틈만 엿볼뿐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IV, v, 123-5).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문제와 관련하여 Hamlet이 겪는 좌절감은 근본적으로 삼촌이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서 사적인 복수(private revenge)를 할 수도 없고 그가 선왕을 시해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생긴 것임을 우리는 위의 독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Hamlet은 거의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이 딜레마를 따져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사적인 복수만을 집착한다. 사람들에게 삼촌의 대역죄를 고발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위의 독백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복수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공적인 복수 문제도 이면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사적인 복수를 부르짖을 때 그는 공적인 복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적인 복수를 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의 독백이 가장 잘 입증한다. 사람들에게 삼촌을 고발하여 공적인 복수를 추구하지 못하는 자신을 간도 쓸개도 없는 겁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는 삼촌을 벌써 죽여 독수리 밥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사적인 복수로 생각을 돌렸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머니를 유혹한 “인간도 아닌”(kindless) 삼촌을 생각하면 피가 끓어 복수를 의치게 된다. 그는 삼촌이 왕으로 있는 한 공적인 복수가 불가능하다고 단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적인 복수만을 자신에게 다짐한다.

Hamlet은 위의 독백을 마지막으로 공적인 복수를 단념한다. 배우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삼촌의 대역죄를 고발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적인 복수를 결행할 마음을 다짐하는 일을 생각해 낸다. 그는 유령의 말대로 삼촌이 부왕을 독살한 죄인인가를 실증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삼촌이 보는 앞에서 부왕이 독살당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삼촌의 양심을 시험하기로”(catch the conscience of the King, II, ii, 601) 결심한다. 소위 극중극인 “쥐덫”(Mousetrap)을 삼촌이 보는 앞에서 공연한다. Hamlet이 예상한대로 Claudius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극을 다 보지 못하고 만다. Hamlet은 유령의 말이 진실임을 확인하게 된다. 극이 끝나고 혼자 남게 되자 그는

“뜨거운 피를 빨아먹어도 시원치 않다”(Now could I drink hot blood, III, ii, 298)고 말하면서 복수할 생각에 치를 떤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살의까지 느낀다(let not ever/The soul of Nero enter this firm bosom, III, ii, 361-2). 삼촌의 대역죄를 확인하고 그는 이렇게 복수의 격정에 사로잡힌다. 공적으로 현왕을 고발하여 응징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사적으로 죽이고 말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사실상 포기하고 만다. 극을 보다 말고 자리를 뜬 Claudius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를 보고 Hamlet은 “당장 해치우겠다”(Now I'll do't, III, iv, 74)고 선언한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 보내주게 되니 복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복수를 연기하기로 한다. Claudius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여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잠을 때까지 복수를 연기한다고 말한다. 연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수를 포기한 것임을 우리는 이후의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는 복수를 연기하겠다고 말하고 어머니 방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 Gertrude가 일순간 그에게서 살의를 느껴 살려달라고 외칠만큼 그의 태도는 광적이다. 그는 휘장 뒤에 숨어 있던 Polonius를 순간적으로 찔러 죽인다. 이 자리에서 그는 그 동안 숨겨오던 자신의 속 마음을 모두 털어 놓고 만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모두 토로하고 현왕이 선왕의 시해자라는 사실도 폭로한다. 그리고 자기는 미치지 않았으며 계략상 미친 척해 왔다고 말하면서 현왕에게 일러바치라고 어머니를 다그친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비밀리에 추진하던 복수의 계획을 그는 이렇게 포기하고 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장 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Polonius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왕의 뜻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는 영국으로 자기를 보내면 갈 수 밖에 없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이제 그는 복수자의 공세적 입장에서 현왕의 처분에 순응해야하는 수동적 입장에 놓였다.

이 장면에서 Hamlet은 Polonius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Polonius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신의 응징의 대상이 되었건 신의 대행자로서, 다시 말해 정의의 사자로서 그를 죽이게 되었건 하늘의 뜻일 뿐이라는 것이다.

.....For this same lord

I do repent; but heaven hath pleased it so,

To punish me with this and this with me,

That I must be their scourge and minister.

(III, iv, 176-179)

Hamlet은 자신의 행동을 신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의지나 책임을 포기한 것임을 함축한다. 살인을 해도 신의 뜻이라는 위의 말은 그가 윤리적 책임감을 버리고 필대로 되라는 식의 일종의 자포자기의 심리에 빠진 것을 암시한다. 그가 배우의 연기를 보고 배우처럼 백성들에게 선왕의 억울함을 고발하여 공적으로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체념한 뒤 그에게 일어난 심리적 변화가 일종의 자포자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삼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포기했다. 그 동기가 어떤 것이었던간에 그는 사실상 복수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 대신 그는 복수를 하게 되든 하지 못하게 되든 신의 뜻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할 수 있다. Polonius를 죽인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

할 때 그는 그의 복수에 대한 그러한 그의 변한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그가 삼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 동기를 찾는다면 그가 애당초 허무주의와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던 그의 정신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첫 독백에서부터 자살을 원했다. 자살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성한 이성”(god-like reason)을 믿는 이상주의자지만 “불순한 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현실을 보고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자포자기의 입장을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IV)

Hamlet은 위에서 논한 것처럼 허무주의에서 자포자기로 변해 왔는데, 그러한 그의 심리적 변화가 영국으로 가던 바다에서 구체화된다. 그는 바다에서 인간의 운명이 <우연>에 지배될 뿐이라는 신념을 구체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된다. 그는 자기를 영국에 도착 즉시 죽이라는 왕의 칙서를 발견하고 자기와 동행하는 두 친구를 죽이라는 칙서로 고쳐 쓴다. <우연히> 그는 선왕의 옥쇄를 호주머니에 갖고 있다. 그는 또 <우연히> 해적을 만나는데 해적들은 그를 황태자로 예우해주고 그의 두 친구는 영국으로 가도록 허용한다. 이처럼 바다에서 모든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다. 그는 그런 <우연>을 “하늘의 의도”(heaven ordinant, V, ii, 49)라고 부른다. 치밀한 계획이 수포로 끝나는 수가 있고 무계획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건 그 결과는 <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고 Hamlet은 상각하게 되었다(V, ii, 7-11). 바다에서 Hamlet이 겪은 경험에서 그가 얻은 새로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신의 뜻에 귀의한 듯한 인상을 준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해해 왔다. 이전까지 그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는데 인생 만사가 신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결허한 자세로 바뀌었다고 비평가들은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두 무고한 친구를 죽음으로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겪은 <바다에서의 변화>는 자아 고양의 변화가 아니라 자아 비하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는 두 친구가 스스로 좋아서 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죽게 되면 그 또한 신의 뜻이라는 의미도 함축하는 말이다. 선악에 대한 그의 판단이 전과 달리 불분명해졌다. 전에는 자기만이 옳다는(self-righteous) 확신을 갖고 모든 사람을 잔혹하게 비판했다. 그의 선악관에 따라 “온 세상이 잘못 되어 있다고 개탄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운명”(The time is out of joint. O cursed spite, That I was born to set it right, I, v, 196-7)을 탄식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삼촌에게 복수하는 것이 과연 양심상 조금도 꺼릴 것이 없을지 회의를 품기까지 한다.

He that hath kill'd my king and whor'd my mother,
Popp'd in between th'election and my hopes,
Thrown out his angle for my proper life
And with such a coz'nage—is't not perfect conscience
To quit him with this arm? And is't not to be damm'd
To let this canker of our nature come
In further evil?

(V, ii, 64-70)

삼촌을 생각만 해도 격분하여 피의 복수를 부르짖던 Hamlet이 이제 자기 목숨까지 노린 삼촌에게 복수하는 것이 양심상 과연 조금도 꺼릴 것이 없는 일인지 자문하고 있다. 바다에서의 기이한 경험을 통해 그는 그때까지 갖고 있던 선악의 기준을 더 이상 지키며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심한 심적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세상 만사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책임은 사람에게 없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나쁘다고 심판할 수 없다. 그는 신의 뜻을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된다. 상벌이 신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던 신의 의도대로 될뿐이라는 Hamlet의 생각은 언뜻 신의 뜻에 완전히 귀의한 자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선악의 기준을 포기 내지 상실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의 뜻에 귀의한다고 해서 사람이 악을 행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로마서에서 “응징은 신의 일이니 복수는 하지 말테 의로운 분노는 표현하라”(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XII, 19)고 가르쳤을 때 그 뜻은 복수는 신에게 맡겨도 선과 악은 분명히 구분하고 오직 선만을 행하는 것이 신에 귀의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다. 신의 뜻에 따른다고 하여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에 귀의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자포자기한 허무주의자의, <될대로 되라는>(Che sera sera) 자포자기의 자세인 것이다. Hamlet은 바다의 경험을 통해 자기를 버리는 자기부정(self-abnegation)은 이루었으나 이 자기부정이 인생의 의미마저 상실하는 자포자기의 허무주의로 변질되었다.

Hamlet이 바다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서상한 자포자기의 허무주의는 공동묘지에서 무덤 파는 사람이 사람의 해골을 파내는 것을 보고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해적을 시켜 불러온 Horatio와 함께 왕궁으로 가던 중 공동묘지를 지나게 된다. 마침 묘지기가 노래를 부르며 Ophelia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이다. 묘지기는 땅 속에서 나오는 해골을 돌조각처럼 내던진다. Hamlet은 묘지기가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해골을 보면서 무엇하던 사람의 해골일까 어떤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의 해골일까 생각한다. 그는 그 해골이 정치가의, 궁중대신의, 법관의, 혹은 대토지 구입자의 해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무슨 짓을 했길래 묘지기한테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도 생각해 본다. 그는 여기서 “운명의 작난”(fine revolution, V, i, 89)을 보는 것같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그는 이 묘지기가 자기가 세상에 나온 날부터 묘지기 일을 해왔다는 말을 듣는다. 그해는 부왕 Hamlet이 Norway의 왕 Fortinbras를 정복했던 바로 그 날이었다는 얘기도 듣는다. 마침 묘지기는 궁중 광대였던 Yorick의 해골을 파낸다. Hamlet은 이 해골을 받아 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Yorick의 등에 수없이 업혔던 일을 회상한다. 그는 Yorick의 등에 업혔던 일과 그에게 입을 맞추었던 일이 생각나자 역겨워 구토를 느낀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사는데 그는 그런 추억이 역겨워 구토를 느낀다. 그는 자신의 근본까지 혐오할 만큼 허무주의에 빠져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까지 혐오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근본부터 혐오하는 사람의 심리다.

Hamlet은 왕의 하찮은 광대가 해골로 변해 있는 꼴을 보고 Alexander대왕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한다. 생존 시에 아무리 위대한 Alexander대왕이었을지라도 결국 죽으면 하찮은 Yorick과 똑 같은 신세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에 그는 놀란다.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과 천한 신분의 사람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Alexander대왕의 “고귀한 몸”(the noble dust of Alexander, V, i, 197)이 결국 “술통 마개”로 쓰이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죽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줌 흙으로 변해버리는데 이 세상에서 찾을 가치가 어디 있으며 선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자포자기의 심리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자포자기의 허무주의는 그가 바다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에서 갖게 된 것이었다. 위에서 분석한대로 그는 Horatio에게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든 결국 그 결과는 신의 의도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악한 일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신세인 것이다. 좋은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고귀한 일을 했건 천한 일을 했건 죽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 그러니 신의 의도대로 될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할 필요없이 “자오만 하고 있으면 된다.”

Hor. If your mind dislike anything, obey it. I will forestall their repair hither and say you are not fit.

Ham. Not a whit. We defy augury. There is a special providence in the fall of a sparrow. If it be now, 'tis not to come; if it be not now, yet it will come. The readiness is all. Since no man, of aught he leaves, knows aught, what is't to leave betimes? Let be.

(V, ii, 213-220)

비평가들 중에는 “한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데도 신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한다”는 성서의 말을 Hamlet이 인용한다고 하여 그가 신의 뜻에 귀의한 새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말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신은 헤아린다”(Bu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X, 30)고 덧붙였다. 신을 믿는 한 사람이 “여러 마리의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간의 목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신에게 귀의한 사람은 신의 의도 안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해서 Hamlet은 어느 때 죽건 문제 될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 죽건 개념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 살다 죽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목숨을 연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그는 Horatio에 한 것이다. 결국 그는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Claudius의 음모에 쉽게 말려들어 Laertes와 결투를 한다. Claudius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Laertes는 독을 바른 칼을 들고 Hamlet과 결투를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운명의 작난으로 격투의 와중에서 두 사람은 칼을 바꾸어 갖게 되고 두 사람은 독을 바른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Laertes는 죽으면서 Claudius의 음모를 폭로하고 Hamlet은 이에 격분하여 Claudius를 죽인다. 싸움에서 Hamlet이 이길 경우에 대비하여 Claudius가 준비해 놓았던 독을 탄 물 컵을 Gertrude가 아들 대신 마시고 숨을 거둔다.

이 마지막 장면의 처참한 죽음은 <우연>에 의해 일어난다. Claudius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Hamlet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Laertes와 Hamlet이 결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칼을 바꾸어 갖게 되어 주인공들이 모두 죽고 만다. Hamlet도 이 자리에서 복수할 의도가 없었지

만 우연히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복수를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의지나 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 Hamlet이 바다에서 겪었던 일처럼 그의 결투도 의외의 결과를 초래한다. Laertes는 “정의가 실현되었다”(justly served, V, ii, 313)고 말하면서 Hamlet과의 화해를 제의하고 Hamlet은 이를 받아들인다. Hamlet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어 죽은 어머니와 작별을 고한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는 원한이나 증오심에서 벗어난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명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자기를 따라 죽으려는 Horatio에게 살아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죽기 전에 부왕의 〈뜻〉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부왕의 영웅상을 계승하고 있는 Fortinbras를 지목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신사고의 사도로서 신사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그가 구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Fortinbras를 부왕의 후계자로 지정한다.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왕의 뜻을 받들어 수행한 것이다.

(V)

Hamlet은 부왕이 서거하고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는 Ophelia의 말대로 “지존의 고귀한 이성”(noble and most sovereign reason, I, i, 159)이 통제하는 “고귀한 정신”(a noble mind, I, i, 152)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그의 고귀한 정신이 부왕이 죽고 어머니가 재혼하는 것을 보고 분렬을 일으켰다. 부왕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은 Hamlet의 정신 세계에서 그들이 상징하던 중세적인 남자상과 여인상을 붕괴했다. 선왕은 중세적인 인간관, 신분 중심의 인간관에 의하면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서 영웅적 인물이다. 그는 황태자로서 그와 같은 부왕의 후계자다. 그는 부왕의 신분을 물려받아 가장 고귀한 영웅적 인물이 될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꿈은 부왕의 서거와 삼촌의 등극으로 허물어졌다.

Hamlet은 부왕과 삼촌을 Hyperion(Apollo)과 Satyr로 대비했다. 자신의 이상적 자아(another self)의 상징인 부왕은 신격화하고 그러한 부왕의 목숨과 자리를 약탈한 삼촌은 반인반수의 Satyr, 즉 인간이하의 존재로 비하했다. 일종의 심리적 보복이다. 그리고 부왕이 서거한지 한 달도 안 돼 삼촌과 재혼한 어머니를 역시 인간 이하로 비하했다. 왕비로서 가장 고귀한 여성을 대표하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Hamlet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Hamlet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을 상징하던 어머니가 가장 타기할 여성으로 전락했다. 그리하여 그의 세계에는—정신적인 세계에서나 현실적인 세계에서—중세적인 영웅과 정결의 여인은 사라졌다. 반인반수의 삼촌과 반인반수로 변절한 어머니와 이들을 추종하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만이 그의 세계에 존재하게 되었다. 비유적으로 말해 그의 세계에는 중세적인 영웅은 원한에 사무친 유행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의 삼촌과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다. Hamlet 자신이 고전사상을 습득하여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 것이 그의 세계를 변화시킨 근본적 원인이다. 그가 Horatio를 자신의 또 하나의 자아로 삼고 새로운 이상적 인간상을 투영한 것은 그의 신사고의 소산이다. 그의 세계에서 이 Horatio는 유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세의 영웅상을 대체하고 있다. Hamlet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중세의 영웅이 아니라 Horatio가 대표하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바뀌었다.

Hamlet은 부왕의 지시를 어기고 있다. 그는 부왕이 대표하는 영웅상을 기억하길 거부하

고 새로운 이성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한다. 그는 자신이 부왕의 영웅상을 허물면서 그 책임을 삼촌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는 삼촌을 원망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외치지만 부왕의 적은 삼촌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신사고도 부왕의 적이다. 부왕이 대표하는 세계를 허물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추구하는 신사고이기 때문이다. Hamlet은 그러한 역설, 자기모순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삼촌을 응징하여 부왕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괴로와한다. 이 괴로움은 부왕에 대한 아들로써의 도리와 충성심을 저버리지 못하면서 “이성이라는 신”(godlike reason, IV, iv, 38)을 섬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겪는 자기 모순, 자아분열의 본질이다. 그는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바다에서 겪는 뜻밖의 경험을 통해 찾게 된다. 그는 바다에서 인생이 우연에 지배될 뿐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진다.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 무의미하며 우연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허무주의는 공동묘지에서 더욱 심화되어 인간은 육신으로 존재할 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며 따라서 일찍 죽건 늦게 죽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이상, 최고의 인간적 가치를 열렬히 추구하던 그에게 이것은 비참한 패배다. Hamlet이 겪는 비극적 경험의 본질이다.

Hamlet은 죽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다시 말해 부왕의 후계자로 Fortinbras를 지목한다. 비록 자신은 부왕의 뜻을 어기고 신사고에 앞장섰지만 죽으면서 그는 부왕의 뜻을 <기억>한 것이다. 마침내 죽으면서 그는 부왕의 원수를 갚았다. Claudius를 죽이는 것만으로 선왕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니다. 이성 중심의 신사고의 흐름을 막고 중세적 영웅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선왕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왕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해야 했다. 신사고에 대한 그의 꿈을 그는 포기해야 했다. 이것은 그가 대변혁기의 정신적 혼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그 희생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친구 사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하던 고뇌의 표상이기도하다. 사실 Hamlet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서구인들이 크건 적건 나름대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민을 경험했다. 결국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라는 대변혁기를 살아야 했던 서구인들의 정신적 혼란과 그 혼란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을 Hamlet의 기구한 운명의 극화를 통해 형상화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